

김정은장군께 영광을

작사 차영도
작곡 김강남

승리의 희열과 링만에 넘쳐 (♩=78)

1. 백 두의억 선히 - 세 계 에 떨친 -
 절 세의영-웅을 - 우 러 름 니 다 -
 강 국의인 민이 - 터 치는환 호성 - 삼 -
 천 리- 강 토 들 뒤 흔 듭 니 다 -
 영 광 을 드립니 다- 우 리 장 군께 -
 영 광 을 드립니 다- 김 정은장 군께 - 영
 광 을 삼 가 드립니 다

2. 정의와 평화의 보검을 주신 민족의 은인을 우러릅니 다
 자유와 행복이 꽃피는 땅에서
 고마운 그 은덕 노래합니다
 (후렴)

3. 내 조국 영원한 푸른 하늘을
 만고의 명장이 펼쳤습니다
 장군의 품에서 끝없이 번영할
 백두산대국은 무궁합니다
 (후렴)

1번에서 계속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군민경축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우주개발국 보드를 박영호 도당 위원회 책임비서가 방북한데 이어 도당위원회 비서 박대섭, 조선인민군 장병 전태호, 배우의 확대 학 부장 김철봉,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비정성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로 주제공연의 위력파 나리의 과학기술적재력이 남김없이 파시되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위상이 다시금 확고해졌다고 강조하였다.

존엄높은 주제조선의 위성발사는 당의 부위에 크게 공적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 백두산대국의 국력을 온 세상에 시위한 력사적사건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정령들과 도안의 전체 인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주체의 위성을 만리대공에 단숨에 쏘아올린 기상을언오의 흥진에서 영웅적위훈과 기적의 창조자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년판철에로 인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적구 불타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도앞에 제시된 압록강산계곡을 무조건 수렴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정령들이 싸움준비를 더욱 완성하여 미래와

그 후종대역들이 감히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부심을 떨칠만 할바도 건드린다면 무자비한 타격으로 현수들을 짓밟아버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함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최첨단과학기술의 성과를 치료방사업에 적극 받아들여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농업부문 인민들과 근로자들이 황해남도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교와 헌신을 언제나 잊지 말고 압록강을 절정적으로 높이 나감에 대하여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백두산위인들의 손길이며 주제혁명위업을 떠매고나갈 맹장들로 자라난 우리 청년들이 정성국가건설의 전구미에서 선군전진위위 승리와 용맹을 힘있게 펼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군민경축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우주개발국 보드를 전승훈 도당 위원회 책임비서가 방북한데 이어 도당위원회 비서 김봉식, 조선인민군 장병 김병기, 도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국철, 도청년동맹위원회 부위원장 박광철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뜻깊은 광명성결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2월의 맑고 푸른 봄날날기에 새겨진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황홀한 비행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증시정책의 위대한 승리의 결정체이라고 강조하였다.

주체의 위성의 성과적발사를 백두산대국의 종합적국력을 힘있게 파시한 대장지이며 우리 군대의 인민에게 최후승리에 대한

무한한 신심과 박판을 인정해주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재적언어와 예지와 과학적통찰력, 무비의 탄력과 명철한 지각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공화국의 실용위성들이 대지를 박치고 팔황한 우주공간으로 솟아올라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도안의 인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황해남도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교와 헌신을 언제나 잊지 말고 압록강을 절정적으로 높이 나감에 대하여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백두산위인들의 손길이며 주제혁명위업을 떠매고나갈 맹장들로 자라난 우리 청년들이 정성국가건설의 전구미에서 선군전진위위 승리와 용맹을 힘있게 펼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피뎠는 청년들이 청년장군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사랑이 간직하고 강성국가건설의 대고조전투쟁이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당의 명도들과 당의 당원들이 정성국가건설의 위대한 승리의 결정을 위하여 힘차게 싸우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은 절실한 한》노래를 부르며 그들은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승리자의 신심드높이 전례없는 비약의 폭풍을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인 발사소식에 접하고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소식은 각지 인민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며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와 부강번영을 절제적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당을 따라 백승의 한길, 부강번영의 지름길을 달려갈 인민들의 불같은 목소리가 이 땅을 진감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세계는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우리 인민의 힘과 슬기를 총괄해서 감성변영하는 천하제일강국, 백두산대국을 어떻게 일떠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입니다.》

각 도, 시, 군과 현합기업소의 인민들이 우리의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전무적인사를 보내고있으며 그들처럼 부강조국건설에서 선군조선의 본례를 보일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고 있다.

평양북도당위원회 비서 안경근은 뜻깊은 광명성결을 맞으며 또다시 위성발사소공이라는 민족사적대사를 안아온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을 한사 함안사함 다 목마를 대워주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도로 하였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최첨단과학기술의 종합적인 위성발사소공으로 또다시 파시한 그들은 진짜 보배들이다. 김정은대국주의를 버와 살로 새기고 신心に 구원할을 아는 이런 보배들을 기우는데 당사업의 주체는 힘을 넣었다.

도안의 당조직들에서 어머니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기 높은 실적을 쌓아가는 공적적인 소행의 주인공들을 적극 찾아 일방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도록 하였다.

개천지구관측위성사업소 당위원회 조직부 지도원 김희철

은 담당단위인 봉천관방에서 위성발사소공소식에 접하였다. 그 순간 《안녕!》소리가 저 도로브레 머져나갔다고 하면서 말하였다.

깊음으로 비약하는 조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친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의 기상과 본례를 본받아 보다 혁신적으로 일태나가겠다.

철두철미 실력으로 당중앙의 권위를 옹위하여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실心和 밀집의 결부하여 당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경막장들에서 석권중신의 불결이 거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황해북도농업과학분원 조급당비서 박성준은 인공지구관측위성발사소공의 격동적인 소식이 전해진 즉시 연구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격심없는 정치사업을 벌리었다. 그는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승리는 비상한 자강력의 결정체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세계를 굽어보며 더욱 힘차게 내달리라고 호소하였다.

연구사들이 열렬히 호응해 나갔다. 경애하는 현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우방공중과 과학농민을 적극 받아들여 도의 농업생산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의 전투는 드높은 열의속에 벌어지게 되었다.

평천일용농수품공장 조급당비서 리정희는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의 승리는 당의 국산화정책의 뚜렷한 파시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피력하였다.

지금까지 공방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일부 수입에 의거하던 원료를 국산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성과에 조금도 만족할수 없다.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의 불같은 기개와 담대한 배짱을 본받아 온 공장에 국산화의 불결을 활활 지펴내겠다. 그리하여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

적구 이바지하겠다.

은천군 광명농장 조급당비서 김중문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소공소식에 전례지자 농업근로자들에게 줄어 김일성민족,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기개를 만천하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현수님의 위대성을 배설해주고나서 강조하였다.

신념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우주과학자, 기술자처럼 백두의 칼바람을 견디고 우뚝하여 올레농사에서 기어오 장훈을 부르자.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우리의 위성이 날오는 푸른 하늘아래 예년에 없는 만물년의 직황을 펼쳐놓자! 어찌 그의 심정뿐이라.

방산과 이촌, 학교와 병원 등이 땅의 방방곡곡에서 울려나오는 인민들의 드높은 신념의 목소리, 불같은 열의의 목소리는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진군에 승리의 전군가마냥 불없이 메아리치고 있다.

황해북도농업과학분원 조급당비서 박성준은 인공지구관측위성발사소공의 격동적인 소식이 전해진 즉시 연구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격심없는 정치사업을 벌리었다. 그는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승리는 비상한 자강력의 결정체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세계를 굽어보며 더욱 힘차게 내달리라고 호소하였다.

연구사들이 열렬히 호응해 나갔다. 경애하는 현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우방공중과 과학농민을 적극 받아들여 도의 농업생산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의 전투는 드높은 열의속에 벌어지게 되었다.

평천일용농수품공장 조급당비서 리정희는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의 승리는 당의 국산화정책의 뚜렷한 파시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피력하였다.

지금까지 공방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일부 수입에 의거하던 원료를 국산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성과에 조금도 만족할수 없다.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의 불같은 기개와 담대한 배짱을 본받아 온 공장에 국산화의 불결을 활활 지펴내겠다. 그리하여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

우주과학자, 기술자처럼 최후 승리의 레일을 지휘의 강철거동으로 굳건히 떠맡을 불라는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전국의 로동계급에게 호소문을 보낸 로동계급에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공과 맞이하기 위한 총공적전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달려나갔다.

자강력적업주의를 펼 승의 무기로 굳건히 틀어쥐고 주제활성산계곡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벌이며 중앙로부생산을 계속 다그쳐나갔다.

오기산자연보호구관리소 소장 김광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떨치며 만리대공에 치달아온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 발사소식은 자강령의 인민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

우리 자강령은 선군정책의 길을 걸고결심 선 위대한 장군님과 결심한 인민을 맺은 력사의 고장이다.

선군명령의 위대한 손길에 이끌려 강성정신이 창조되고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통과하는 경이적인 사면이 조국땅에 펼쳐졌다. 자강도는 고난의 행군시기 자신에게 정은 고장이라고 그토록 잊지 못해하시던 우리 장군님이셨다.

정령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위대한 선군명령의 불멸의 자욱자욱이 눈물겹게 안겨오 우리 장군님께서 영웅신 영원불멸할 혁명업적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져 솟아나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지금 우리 판피소인의 전체 공업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년대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선군혁명천리길을 앞장에서 해척할 결의에 불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통남산 아들 딸 들의 맹세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있으며 종합대학에 대한 우리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큼니다.》

뜻깊은 광명성결을 앞두고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눈부신 발사소공소식에 접하고 심장이 머져나갈것만 같은 거대한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나 김정일종합대학 수학과 학생 김주성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위성발사소공은 일찌기 우주정복의 위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우주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높은 문명도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대한 뜻을 정히 받들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현수님의 열화같은

총성과 탁월한 명도가 안아온 승리는 결심이다.

당에 대한 불라는 충정을 안고 뛰어난 실력과 애국적인 신심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인민들이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온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어떻게 축하의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조국이 바란다면 그 무엇도 척척 만들어내려고아하는 애국파자지들에는 우리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처럼 통남산에서 다진 신념의 맹세를 순간도 잊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위대한 당, 김일성,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는 높은 실력자, 참된 지식인이 되겠다는것을 굳게 결심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지필

학부 학생 리명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의 위성이 또다시 대지를 박치고 우우에 날아올랐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라고 하는 생각에 저 도로브레 눈시울이 젖어붙었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우주정복실현의 관철을 다신한 가슴부른하게 내걸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발사소공소식은 통남산의 아들딸들의 가슴속에 이룰수 없는 흥분과 함께 최첨단의 높은 명마무들을 맹 앞장에서 들라할수 있는 인재들로 준비해나갈 비상한 열의와 자각을 더욱더 북돋아 주었다고 이어 말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재료과학부 학생 김희철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도로 하였다.

우리의 탄력과 배짱, 천연만화

의 지력과 비범한 명도로 최첨단수준에 올라선 우리의 우주과학자들은 온 세계에 힘있게 파시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현수님의 말걸음소리가 가슴이 쿵쿵 울리는것만 같았다.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는 그 거룩한 날들에 맞추어 세인을 불태우는 력사적인 패승을 안아온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을 어깨에 메이고 온 세상에 소리가 자랑하고싶은 심정이다.

경애하는 현수님의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다름아닌 통남산의 아들딸들이 현실 앞장에서 실현해나가야 한다는 숭고한 정신을 안고 학습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에서 그 어떤 책임을 주어도 자기일에 무조건 전철하고아하는 유능한 혁명인물로 준비해나가겠다.

【조선중앙통신】

◎ 우리에게 빛을 뿌리는 주제조선의 위성들 ◎

주제조선의 또 하나의 위성이 우주를 날오는 이 시각 민족사적대경사, 경이적인 력사적사건들을 안아오신 백두산천리위인들의 불멸의 그

열의에 경건히 머리숙이며, 태양의 그 명성을 마음속에 삼가 그리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위성이 날아가는 시간을 력사를 감회있게 지켜다.

인공지구관측위성 100%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하였고 화물도 탄탄성공시켰다.

인공지구관측위성 《광명성-1》호의 성과적발사는 당을 따라 고난과 시련을 파견히 헤쳐나갔던 우리 인민에게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박판을 인정해주었으며 이 땅에 강성국가건설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로성으로 되었다.

강성국가의 대문을 두드린 《광명성-2》호

사회주의조선의 첫 시험위성 《광명성-1》호를 이어올려 단탄에 우주로 보내진 위성의 위성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줄기찬 투쟁을 벌여 위성개발과 발사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2009년 4월 5일 11시 20분, 시험용 위성 《광명성-2》호가 지구로 박치고 솟아올랐으며 운반로켓 《은하-2》에 실려 우주공간으로 날아올랐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공지구관측위성 100%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하였고 화물도 탄탄성공시켰다.

인공지구관측위성 《광명성-1》호의 성과적발사는 당을 따라 고난과 시련을 파견히 헤쳐나갔던 우리 인민에게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박판을 인정해주었으며 이 땅에 강성국가건설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로성으로 되었다.

강성국가의 대문을 두드린 《광명성-2》호

사회주의조선의 첫 시험위성 《광명성-1》호를 이어올려 단탄에 우주로 보내진 위성의 위성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줄기찬 투쟁을 벌여 위성개발과 발사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2009년 4월 5일 11시 20분, 시험용 위성 《광명성-2》호가 지구로 박치고 솟아올랐으며 운반로켓 《은하-2》에 실려 우주공간으로 날아올랐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공지구관측위성 100%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하였고 화물도 탄탄성공시켰다.

인공지구관측위성 《광명성-1》호의 성과적발사는 당을 따라 고난과 시련을 파견히 헤쳐나갔던 우리 인민에게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박판을 인정해주었으며 이 땅에 강성국가건설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로성으로 되었다.

강성국가의 대문을 두드린 《광명성-2》호

사회주의조선의 첫 시험위성 《광명성-1》호를 이어올려 단탄에 우주로 보내진 위성의 위성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줄기찬 투쟁을 벌여 위성개발과 발사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2009년 4월 5일 11시 20분, 시험용 위성 《광명성-2》호가 지구로 박치고 솟아올랐으며 운반로켓 《은하-2》에 실려 우주공간으로 날아올랐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공지구관측위성 100%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하였고 화물도 탄탄성공시켰다.

인공지구관측위성 《광명성-1》호의 성과적발사는 당을 따라 고난과 시련을 파견히 헤쳐나갔던 우리 인민에게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박판을 인정해주었으며 이 땅에 강성국가건설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로성으로 되었다.

강성국가의 대문을 두드린 《광명성-2》호

사회주의조선의 첫 시험위성 《광명성-1》호를 이어올려 단탄에 우주로 보내진 위성의 위성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줄기찬 투쟁을 벌여 위성개발과 발사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2009년 4월 5일 11시 20분, 시험용 위성 《광명성-2》호가 지구로 박치고 솟아올랐으며 운반로켓 《은하-2》에 실려 우주공간으로 날아올랐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

최고명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최대의 행운으로 된다.

그이는 뛰어난 정치실력과 고매한 덕망을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당과 군대, 인민을 천명하게 이끌고 승리만을 펼쳐오셨다.

조선의 천천천히 펼쳐지고있는

최고명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최대의 행운으로 된다.

그이는 뛰어난 정치실력과 고매한 덕망을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당과 군대, 인민을 천명하게 이끌고 승리만을 펼쳐오셨다.

조선의 천천천히 펼쳐지고있는

최고명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최대의 행운으로 된다.

그이는 뛰어난 정치실력과 고매한 덕망을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당과 군대, 인민을 천명하게 이끌고 승리만을 펼쳐오셨다.

조선의 천천천히 펼쳐지고있는

최고명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최대의 행운으로 된다.

그이는 뛰어난 정치실력과 고매한 덕망을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당과 군대, 인민을 천명하게 이끌고 승리만을 펼쳐오셨다.

조선의 천천천히 펼쳐지고있는

